

적벽낙화(赤壁落火)

위 (魏), 촉(蜀), 오(吳) 삼국의 역사가 중국의 삼국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히고 있는 소설 삼국지(三國志演義)는 이의 역사적 사실이 70%, 소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픽션이 30% 정도 조합된 것이라 하며 특히 도원의 맹세로 시작되는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에 관해서는 과장이 좀 더 많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위”의 조조와 “촉”의 제갈공명이 소설에서는 유비 삼형제와 그 주역의 자리가 바뀐 듯 하지만 이들을 당대 최고의 인물로 꼽기를 서슴치 않을 사람도 많을 것이다.

세계의 전쟁사에 불멸의 이름을 남긴 적벽대전(赤壁大戰)은 시대의 풍운아 조조와 와룡(臥龍) 제갈공명의 한판 승부였다. 어유(魚油)를 뿌린 건조를 가득 실은 공명의 선단이 투항을 가장하여 접근한 뒤 폴단에 불을 질렀다. 때 마침 불어온 동남풍을 타고 불길이 옮겨 붙어 북안에 포진한 조조의 수군은 제대로 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괴멸되었다. 지형과 일기를 이용한 화공(火攻)의 교범처럼 인용되는 이 적벽전에서의 패배로 조조는 천하통일의 일보 직전에서 좌절 당하고 그 위업을 아들 대에 물려주어야 했다. 그 때 공명의 나이 약관 28세였고 조조는 54세, 그리고 유비는 48세였다.

화순(和順)의 적벽은 팔도를 방랑하던 시인 김삿갓(金炳淵)이 그의 손 때 묻은 대나무 지팡이를 안고 숲을 거둔 곳으로 유명하다. 웅성산 자락 아스라히 검붉은 바위벽 아래로 푸른 비단과 흰 베를 겹으로 깔아 놓은 듯, 적벽강이 모래를 끼고 흐르는 풍광명미(風光明媚)의 이곳은 김삿갓 같은 풍류객이 가히 최후를 맡길만한 곳이라.

화순적벽은 기묘사화 때 이곳에 귀양 와 있던 유학자 최산두가 소동파의 적벽부(赤壁賦)에 나오는 중국 양자강 가의 적벽에 버금 같만하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사월 초파일 밤이면 마을 사람들이 적벽을 타고 올라 벼랑에 몸을 붙이고 “적벽 낙화놀이”를 벌였는데, 이 놀이는 마른 풀더미 속에다 돌을 넣어 묶은 뒤에 한뭉음씩 불을 붙여 농악가락에 맞춰 강물에 던지는 것이다. 밤하늘의 별이 떨어지듯 불 무더기들이 검푸른 강물위에 수없이 반사되며 사라지고 또다시 이어지는 모습은 적벽의 절경을 한껏 돋보이게 했다고 한다.

소동파(蘇軾)가 적벽부 후편을 썼던 가을밤에 술에 취하여 적벽을 오른 기록이 있다. 둥근달이 동편에서 떠올라 북두성과 천우성을 배회할 때 하얀 안개가 강위를 덮고, 달빛에 반사된 안개에 물빛이 녹아들어 천지가 물인지 안개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 동파는 옷을 걷어 올리고 가시덤불 사이 사이를 헤쳐가며 적벽 꼭대기까지 올라 무아의 경지를 맛보았다고 하는데, 화순의 적벽낙화놀이는 이와도 또한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본래 부처의 탄생을 기리는 의미로 시작되었다는 적벽낙화놀이는 그 형태에서, 그 의미에서 1,800년 전 불꽃 튀기던 적벽싸움과 900여년 전 달빛 속의 적벽부를 함께 재현한 것이 아닐까... 춘향가, 심청가, 토끼타령, 가루지기타령, 박타령과 더불어 판소리 여섯마당 중의 하나인 적벽가(赤壁歌)를 우리가 사랑하듯 잊혀져 가는 풍습들이 예사롭지 않고, 특히 화순의 적벽낙화놀이는 불(火)이 있어 더욱 따스하다.

金東一 / 危險管理部 課長